

## 묘조인 절

후쿠에 섬의 후쿠에 외곽에 있는 묘조인 절은 8 세기에서 9 세기까지 고토를 경유해 당나라로 건너갔던 견당사의 영빈관이었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절에 있는 구리 약사여래상은 사절 중 한 사람이 바다를 건너는 위험한 여행을 보호하는 부적 용도로 섬에 들여온 것으로 보이며, 이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견당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인 불교 승려 구카이(774~835)가 806 년에 중국에서 귀국했을 때 이 사찰에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전설에서 구카이는 자신이 얻은 지식이 일본과 일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밝은 별이 하늘에 나타났고, 구카이는 기도를 올린 곳에 '묘조안(明星庵)'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이것이 훗날 묘조인 절이 되었습니다.

14 세기 우쿠 씨 일족(훗날 고토 씨 일족)은 묘조인 절을 대대로 기원소(祈願所, 소망을 기원하는 절)로 삼았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는 후쿠에 번주 고토 씨 일족으로부터 사령을 부여받았고, 18 세기에는 본당 재건을 위해 본당 내부를 다시 칠했으며, 가노파(狩野派) 화가에게 의뢰한 천장화는 121 장의 화초와 새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천장의 네 모서리에는 죽은 자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천사 같은 존재인 천녀가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외진의 중앙 부근, 다이묘가 앉아 기도를 드리는 곳의 바로 위에는 동아시아의 신화에서 왕의 탄생을 알리고,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새인 '봉황'이 그려져 있습니다.